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anuary 2026 Issue | Vol. 06

SPECIAL POINTS OF INTEREST

- PEZA “잠재 투자자들, 부패 문제에 큰 영향 받지 않아”
— page 1
- 관광객 수 600만 명 간신히 넘어… 팬데믹 이전 정점엔 여전히 못 미쳐
— page 2-3
- 경제학자, 2026년 필리핀 경상수지 개선 전망 — page 3
- FPI “단일 창구가 무역 지연 해소의 핵심” — page 4
- MAP, 기업에 디지털 전환과 ASEAN 진출 선도 촉구 — page 4-5
- 마르코스 정부 “자동차 산업 포기하지 않을 것” — page 5-6
- AMRO, 필리핀 경제 성장 전망 불투명
— page 6-8

PEZA “잠재 투자자들, 부패 문제에 큰 영향 받지 않아”

January 20, 2026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필리핀 경제자유구역청(PEZA)은 인프라 부패 스캔들이 아직 잠재 투자들의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올해 자청이 관리하는 경제자유구역에서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모든 현안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한 투자 둔화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전 세계에 필리핀이 ‘비즈니스에 열려 있으며’, 이들의 투자를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리핀 경제자유구역(PEZA) 테레소 O. 평가 청장은 화요일 One News의 ‘머니 톡스 워드 캐시 양(Money Talks with Cathy Yang)’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직접 고용 인원은 180만 명이며, 올해는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 분야에서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PEZA는 올해 총 3,000억 폐소 규모의 투자 약정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에 승인한 2,620억 폐소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현재 PEZA가 관리하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활동 중인 상위 3대 산업은 제조업, 경제자유구역(에코존) 개발, 그리고 IT-BPM 산업이다.

“우리가 유치하는 이러한 투자들은 실제로 집행될 경우, 단순한 숫자상의 일자리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어 그는 “성장의 두 가지 핵심 동력은 전자 산업과 IT·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 부문”이라며 “농촌과 신성장 지역에 더 많은 경제자유구역(에코존)을 조성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생계 수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평가 청장은 이번 부패 스캔들이 필리핀의 투자처로서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리스크와 정부 내 부패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분명히 투자처로서의 우리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내각의 발언을 보면, 이 사안을 최종적으로 매듭짓겠다는 선의는 분명해 보인다”며 “이 혼란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때에만, 우리가 진지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자유구역이 부패 스캔들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투자자들에게 들 하는 말은, 적어도 PEZA가 관리하는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그들의 투자가 보다 안전한 피난처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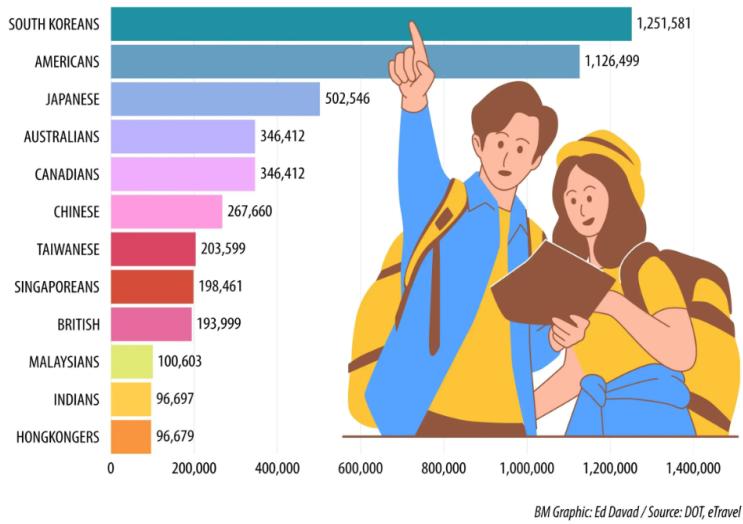
정부가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개혁 패키지를 발표한 이후, 평가 청장은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일관성과 제도 간 조화가 필요하다”며 “그리야만 법과 등록 계약에서 약속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1/20/725449/peza-says-prospective-investors-shrugging-off-corruption-concerns/>

관광객 수 600만 명 간신히 넘어… 팬데믹 이전 정점엔 여전히 못 미쳐

January 20, 2026 | Ma. Stella F. Arnaldo | BusinessMirror

TOP 12 SOURCE MARKETS FOR FOREIGN TOURISTS (January-December 2025)



또한 DOT는 지난해 국제 관광객 지출액을 6,940억 폐소로 추산했다. 다만 2024년 입국 관광객 수입에 대한 공식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관광부는 이를 7,600억 폐소로 추정하고 있다.

6.7백만 명 목표 달성 방안

관광부(DOT)는 2026년 방문객 수를 67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프라스코 관광부 장관은 올해 일반예산법에 배정된 10억 폐소 규모의 브랜드 캠페인 자금을 활용하면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고서에서 메이뱅크 증권(Maybank Securities Inc.)은 “DOT의 2026년 670만 명 방문객 목표 달성은 두 가지 핵심 요인에 달려 있다: 친관광 정책(전자비자 확대, 부가가치세(VAT) 환급)과 공항 수용능력 확충”이라고 분석했다.

메이뱅크 애널리스트 로날린 조이스 랄리모는 지난해 말 인도와 중국 본토를 대상으로 전자비자(e-visa) 제도가 시행된 점을 언급하며, 두 나라 모두 주요 해외 관광객 유입국이라는 점에서 “이로 인해 2026년 초에 관광객 수 증가 효과가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DFA)는 지난주 마닐라와 세부를 통해 입국하는 중국 본토 관광객에 대해 14일 단기 체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DFA의 e-visa.ph 웹사이트에 따르면, 155개국 거주자는 필리핀에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브라질과 인도는 59일 체류가 허용된다. 이 155개국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 호주, 팔라우, 일본, 한국 등 아시아 · 태평양 국가,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 아랍에미리트 · 카타르 · 사우디 등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이 포함된다.

랄리모 애널리스트는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VAT) 환급 법안이 연간 약 86억~128억 폐소의 관광객 지출을 추가하고, 소매 소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활주로 보수와 여객터미널 확장 등 공항 시설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는 올해 수용 능력 제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2027~2028년까지 공항 수용 능력이 248% 증가해 1억 2,200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다만 완전한 효과는 2028년 이후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3]

필리핀은 지난해 해외 거주 필리핀인과 북미 지역 관광객 유입에 힘입어 총 587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다.

관광부(DOT)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광객 수는 2024년의 595만 명보다 1.34% 감소했으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기록한 역대 최고치 830만 명의 71% 수준에 그쳤다.

전체 입국 관광객 가운데 외국 국적자는 533만 명으로 2.08% 감소한 반면, 해외 거주 필리핀인은 전년 대비 6.41% 증가했다. 해외 거주 필리핀인(OF)은 필리핀 여권을 소지하고 영구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의미한다. 해당 수치는 이민국(BI)이 관리하는 e-트래블(e-travel)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됐다.

DOT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다른 이민국 자료를 활용한 전체 입국 관광객 수를 648만 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e-트래블 플랫폼에 일관되게 또는 완전히 포착되지 않은 크루즈 승객과 일부 방문객 유형”을 반영한 수치다. 이 가운데 외국 국적자는 594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여기에 e-트래블 기반 해외 거주 필리핀인 방문객 수가 합산됐다.

관광객 수 600만 명 간신히 넘어… 팬데믹 이전 정점엔 여전히 못 미쳐

[Cont, from page 2]

한국인 여전히 최다 방문객

“단기적으로는 단계적 관광 노선 확대와 운항 횟수 증가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섬 간 체류 연장이 2026년 수익 중심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랄리모 애널리스트는 말했다.

e-트래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지난해 한국인 방문객이 20.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250,000명으로 여전히 외국인 방문객 중 최다 국가였다. 그러나 외국인 방문객 수 증가의 주된 원인은 북미 지역에서의 급증이었다. 미국은 1,130,000명(+15.75%), 캐나다는 313,027명(+16.24%)이었다. 현지 여행사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유입된 관광객 중 상당수는 이미 거주국 여권을 보유한 필리핀인이거나 미국과 캐나다 거주 필리핀계 시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502,546명(+13.05%), 호주는 316,412명(+36.9%), 인도는 96,697명(+21.84%)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외 주요 방문객 출신 국가는 중국 267,660명(-14.72%), 대만 203,559명(+4.79%), 싱가포르 198,461명(-0.01%), 영국 193,999명(+8.59%), 말레이시아 100,603명(+0.72%), 홍콩 96,679명(-1.43%) 등이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6/01/20/tourist-arrivals-barely-hit-6m-still-below-pre-pandemic-peak/>

경제학자, 2026년 필리핀 경상수지 개선 전망

January 20, 2026 | Joann Villanueva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한 경제학자는 2025년 적자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경상수지(BOP) 회복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월요일 발표된 필리핀 중앙은행(BSP)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경상수지 적자는 8,270만 달러로, 11월의 2,250만 달러 적자보다 확대됐다. 이로써 연간 적자는 57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리잘 상업은행(RCBC) 수석 경제학자 마이클 리카포트는 “경상수지는 특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전 세계와의 총 무역을 요약한 지표로, 올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Photo courtesy of Anadolu)

리카포트 경제학자는 보고서에서 이번 적자가 무역적자, 기상 악화, 홍수 방지 관련 부패 문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몇 달간은, 부패 방지와 기타 개혁 조치, 특히 국가 거버넌스 수준을 높이는 조치가 10~15년 전처럼 진지하게 시행된다면, 경상수지(BOP) 데이터는 더욱 개선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와 투자 심리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리카포트는 또한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 완화도 경상수지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회복 기대는 총국제준비금(GIR)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2월 말 기준 GIR은 1,108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앙은행(BSP)에 따르면, 이 준비금은 상품과 서비스 수입 7.4개월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제 기준인 3~4개월을 훨씬 상회한다.

리카포트는 정부 외채, 안정적인 해외 필리핀 근로자 송금, BPO 수익, 수출 성장, 관광 수입 등으로 GIR 수준이 더욱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경상수지와 총국제준비금이 강해지면 폐소를 지지하고 투기적 압력에 대응하며, 국가의 대외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등급 신용 등급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67338>

FPI “단일 창구가 무역 지원 해소의 핵심”

January 21, 2026 | Bless Aubrey Ogerio | BusinessMirror



약 40개 정부 기관이 국가 단일 창구-통합 무역 지원 플랫폼(NSW ITFP)에 통합되면서, 필리핀의 무역 지원이 줄고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필리핀산업연맹(FPI)이 밝혔다.

이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은 여러 허가와 승인 서류를 하나의 디지털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전처럼 승인마다 다른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대체한다고 FPI는 설명했다.

“이는 거대한 과제지만, 이미 ‘어제 시작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결국 전진하고, 일정 수준에서 ASEAN 이웃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필리핀산업연맹(FPI)은 성명에서 밝혔다.

예를 들어, 식품 수입업자는 과거 식품의약국(FDA), 농무부, 관세청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했다.

한편, 화학물질 수입업자는 필리핀 경찰청, 환경자원부, 관세청을 거쳐야 했고, 전자제품과 자동차 수입업자 역시 지방정부 허가까지 더해져 복잡한 절차를 겪어야 했다.

FPI에 따르면, 통합되는 기관들은 다양한 수출입 허가, 면허, 승인서를 발급한다. 이러한 절차를 중앙화함으로써 NSW ITFP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 승인 속도를 높이며, 공급망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이 완전히 운영되면 ASEAN 단일 창구와 연결되어, 필리핀 무역업체들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2008~2016년부터 국가 단일 창구를 운영해온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FPI는 NSW ITFP가 국세청(BIR) 디지털 전환(DX) 로드맵 2025-2028과 상호 보완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로드맵은 세무 집행 현대화를 목표로 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감사는 재량이 아닌 데이터와 리스크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인공지능(AI)이 잠재적 준수 문제를 식별하고, ICT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며, 납세자 포털도 현대화된다.

BIR은 “2028년까지, 준수 시스템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며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FPI에 따르면, 두 로드맵의 목표는 관료적 장벽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며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다.

“하나는 내부를 향해 감사와 준수를 보다 공정하고 원활하게 만든다. 다른 하나는 외부를 향해 무역을 빠르고 경쟁력 있게 한다”며, “두 로드맵은 세금과 무역 모두에서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FPI는 설명했다.

다만 FPI는 기술 업그레이드, 직원 교육, 오래된 관행 개선 등 실행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로드맵들이 충실히 실행된다면, 기업들이 정부 절차를 장애물이 아닌 성장의 촉진 요소로 인식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Image credits: [Skypixel | Dreamstime.com](#)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6/01/21/fpi-says-single-window-key-to-reducing-trade-delays/>

MAP, 기업에 디지털 전환과 ASEAN 진출 선도 촉구

January 21, 2026 | Othel V. Campos | Manila Standard

필리핀경영자협회(MAP) 회장 도널드 림은 화요일, 기업 단체들이 디지털 전환, 국가 발전, ASEAN 참여를 중심으로 한 대담한 리더십 의제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첫 총회에서 연설한 림 회장은, 조직이 단순히 글로벌 트렌드를 따르는 수준을 넘어 혁신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이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사회 발전과 미래 지도자 육성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Cont. page 5]



MAP, 기업에 디지털 전환과 ASEAN 진출 선도 촉구

[Cont. from page 4]

림 회장은 “세계는 한 세대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산업을 혁신하고 자동화가 노동의 성격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빠르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뒤처질 위험에 직면한다고 경고했다.

림 회장은 또한 “신뢰가 취약하고 글로벌 환경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는 시기에, 민간 부문의 집단적 리더십이 국가의 회복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AP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리더리시를 확대하는 정책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림 회장은 이러한 노력이 지리적 위치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필리핀인들이 기술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니라 창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 기업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촉구했다.

기술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MAP은 경험이 풍부한 임원과 젊은 전문가를 연결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도구를 책임감 있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림 회장은 2026년 필리핀이 ASEAN 의장국을 맡게 되는 시점을 고려해, 조직을 국가 발전의 핵심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 부문이 회원 전용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를 위한 이니셔티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의 성과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로 평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AP은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무역, 지속 가능성, 디지털 통합과 관련한 ASEAN 비즈니스의제에 기여할 계획이다.

Source: <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693657/map-urges-businesses-to-lead-digital-asean-shift.html>

마르코스 정부 “자동차 산업 포기하지 않을 것”

2025년 예산 절감분, CARS 의무 이행에 활용…조치 환영

January 20, 2026 | By: Logan Kal-El M. Zapanta, Nyah Genelle C. De Leon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INQUIRER FILE PHOTO

마닐라, 필리핀 — 마르코스 행정부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재확인하며, 정부의 핵심 자동차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CARS(Comprehensive Automotive Resurgence Strategy) 프로그램과 관련한 남은 의무를 2025년 국가예산의 잉여금을 활용해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월요일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예산관리부, 무역산업부(DTI), 재무부는 2026년 국가예산에서 CARS 프로그램 43억 2천만 폐소(P4.32B) 예산이 거부(veto)된 것이 자동차 산업 지원 철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의무 사항은 2025년 예산에 따른 공공사업도로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의 신고 및 검증된 절감액을 통해 정산되며, 이는 대통령실의 승인과 기준 재정 및 법적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합니다.

이 절감액은 2025년 국가 예산의 프로그램 적요 내에서 DTI-투자청(Board of Investments, BOI) 예산의 재정 지원 항목을 보강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롤란도 톨레도(Rolando Toledo) 예산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발행되고 검증된 세금납부증명서(TPC)에 의해 지원되는 의무 사항은 우리 재정 여력과 확립된 예산 규칙에 따라 합법적이고 질서 있으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지급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단 있는 조치

별도 성명에서 토요타 자동차 필리핀(Toyota Motor Philippines, TMP)과 필리핀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Chamber of Automotiv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Inc., Campi)는 정부의 의지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결정이 예산 문제로 불확실성이 커졌던 업계에 신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nt. page 6]

마르코스 정부 “자동차 산업 포기하지 않을 것”

2025년 예산 절감분, CARS 의무 이행에 활용…조치 환영

[Cont. from page 5]

TMP는 90억 폐소 규모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TMP는 오랜 기간 필리핀 자동차 제조업체를 지원해온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TMP는 “이번 조치는 필리핀을 지속 가능한 자동차 제조 기반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8개의 자동차 브랜드를 대표하는 Campi 또한 토요타의 입장에 동의하며, 이번 결정이 “우리의 산업 정책에 대한 신뢰를 새롭게 하고, 자동차 산업을 장기적 투자 계획에 맞춰 다시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TMP와 미쓰비시 모터스(Mitsubishi Motors Corp.)를 포함한 참여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정부는 아직 약 40억 폐소에 달하는 전액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아직 세금납부증명서(TPC)가 발행되지 않은 검증된 의무 사항은 가용 현금과 재정 여력에 따라 2027년 국가 지출 프로그램(National Expenditure Program) 편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프레데릭 고(Frederick Go) 재무장관이 금요일에 정부가 이미 CARS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했으며, 2026년 예산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계속될 것임을 투자자와 제조업체에 보장한 성명에 따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은 2026년 국가 예산에서 거부된 925억 폐소 규모의 비계획 지출(unprogrammed appropriations) 중 하나였으며, 여기에는 자동차 산업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Revitalizing the Automotive Industry for Competitiveness Enhancement, RACE) 2억 5천만 폐소 배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 장관과 크리스티나 로케(Cristina Roque) 무역장관은 자동차 산업이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할 것임을 국민에게 확신시켰습니다.

핵심 기둥

로케 장관은 “CARS 프로그램의 인센티브가 계속해서 투자자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체는 프로그램이 본래 목적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장관은 “CARS 프로그램은 국내 제조업 강화를 위한 전략의 핵심 기둥이며, 합법적 의무 사항이 공적 자금 범위 내에서 법과 일치하도록 반드시 지급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차 단체와 참여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의 이전 거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핵심 자동차 인센티브 프로그램 재원 지원 결정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환영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69529/govt-we-will-not-abandon-auto-industry>

AMRO, 필리핀 경제 성장 전망 불투명

January 22, 2026 | Justine Xyrah Garcia | BusinessMirror

필리핀에 대한 투자 신뢰가 흔들리면서 가계 지출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과 2026년까지 경제 성장세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아세안+3 거시경제연구기구(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 AMRO)가 밝혔습니다.

수요일 발표된 최신 지역 경제 전망에서 AMRO는 필리핀의 성장을 전망을 2025년 5.6%에서 5.2%로, 2026년 5.5%에서 5.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다(fairly weak)”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동 허(Dong He) AMR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화상 기자회견에서, 민간 소비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투자 모멘텀에는 역풍이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nt. page 7]



AN airplane view of Manila showcases the capital's bustling landscape, including Manila Bay, the port, ships, Pasig River, and towering buildings beneath a cloud-dotted sky.

AMRO, 필리핀 경제 성장 전망 불투명

[Cont. from page 6]

Table 1. ASEAN+3: AMRO Growth and Inflation Projections, 2025–26

Economy	Gross Domestic Product (Percent, year-on-year)				Consumer Price Index (Percent, year-on-year)					
	2024	AREO October Update		AREO January Update		2024	AREO October Update		AREO January Update	
		2025 ^e	2026 ^f	2025 ^e	2026 ^f		2025 ^e	2026 ^f	2025 ^e	2026 ^f
ASEAN+3	4.2	4.1	3.8	4.3	4.0	1.2	1.0	1.1	0.9	1.2
Plus-3	4.1	4.0	3.7	4.2	3.9	0.7	0.6	0.7	0.6	0.8
China	5.0	4.8	4.4	5.0	4.6	0.2	0.0	0.4	0.0	0.4
Hong Kong, China	2.5	2.4	2.0	3.1	2.7	1.7	1.8	1.6	1.4	1.7
Japan	-0.2	1.0	0.6	1.2	0.8	2.7	3.0	2.1	3.1	2.2
Korea	2.0	0.9	1.7	1.0	1.9	2.3	2.0	1.8	2.1	1.9
ASEAN	4.9	4.6	4.3	4.8	4.6	3.1	2.5	2.8	2.3	2.7
Brunei Darussalam	4.1	1.2	1.8	0.1	1.6	-0.4	0.0	0.3	-0.3	0.5
Cambodia	6.0	4.9	5.0	4.8	5.1	0.8	2.6	2.3	2.5	2.3
Indonesia	5.0	5.0	4.9	5.0	5.0	2.3	1.9	2.2	1.9	2.5
Lao PDR	4.3	4.4	4.2	4.6	4.6	23.3	8.5	7.6	7.7	6.8
Malaysia	5.1	4.3	4.0	4.9	4.4	1.8	1.6	2.0	1.4	2.0
Myanmar	2.9	-1.0	1.5	-1.5	2.5	29.6	30.0	28.0	28.0	22.0
The Philippines	5.7	5.6	5.5	5.2	5.3	3.2	1.8	3.2	1.7	3.2
Singapore	4.4	2.6	1.7	4.8	3.0	2.4	0.9	0.8	0.9	1.4
Thailand	2.5	2.2	1.9	2.2	1.7	0.4	0.5	0.8	-0.1	0.3
Vietnam	7.1	7.5	6.4	8.0	7.6	3.6	3.3	2.9	3.3	3.0

■ Revised upwards from October

■ Revised downwards from October

■ Maintained from October

Source: National authorities via Haver Analytics and AMRO staff estimates.

Note: AREO = ASEAN+3 Regional Economic Outlook report. e = estimate, f = forecast. Regional aggregates for growth and inflation are estimated using the weighted average of 2024 GDP on a purchasing power parity basis. Myanmar's GDP and inflation figures are based on its fiscal year, which runs from April 1 of the reference year to March 31 of the following year. Forecasts are as of January 19, 2026.

“따라서 민간 투자는 물론 투자자 신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공 투자는 예를 들어, 홍수 방지 사업과 관련된 논란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라고 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밝혔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2025년 3분기에 4% 성장하며, 정부 목표치인 5.5~6.5%를 밟을 것입니다. 이는 지출 둔화와 홍수 방지 사업 관련 부채 의혹으로 인한 투자 심리 약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2021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로, 당시 경제 생산량은 3.8% 감소했습니다.

경제 관리들은 이후 전망을 조정했습니다. 경제기획개발부(Department of Economy, Planning and Development, DepDev) 아르세니오 M. 발리사칸(Arsenio M. Balisacan) 장관은 2025년 경제 성장률이 4.8~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성장 목표를 5~6%로 낮췄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및 투자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 여건의 지속적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물가 측면에서 AMRO는 2025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기존 1.8%에서 1.7%로 낮추었으며, 2026년에는 3.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PSA)에 따르면, 지난해 필리핀 평균 인플레이션율은 1.7%로 정부 목표치 2~4%를 밟으며, 9년 만에 가장 낮은 연간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필리핀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장세가 팬데믹 이전의 빠른 속도로 돌아오지는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거버넌스 개선, 투자자 신뢰 회복, 공공 지출 우선순위 설정—특히 공공-민간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강화를 통해 경제 회복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며, 공공 지출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는 자연재해, 기후 관련 위험 등에도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라고 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8]

AMRO, 필리핀 경제 성장 전망 불투명

[Cont. from page 7]

“뿌리 깊은 위험 회피”

AMRO 전망을 넘어, 드라살레 대학(De La Salle University, DLSU) 카를로스 L. 티우 경제학부(Carlos L. Tiu School of Economics) 연구진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위험 회피 성향이 필리핀 성장 전망의 주요 구조적 제약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수스 펠리페(Jesus Felipe), 마리엘 모니카 사울러(Mariel Monica Sauler), 제롬 베데자(Gerome Vedeja), 세스 파올로 파덴(Seth Paolo Paden) 연구진이 작성한 별도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부문은 여전히 경제에서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됩니다.

보고서는 “투자 지출은 현재 성장 전망에 가장 큰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정자본 형성(fixed capital formation) 성장률은 연중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총체적으로 볼 때, 민간 부문 내에 뿌리 깊은 위험 회피가 여전히 빠져 있음을 시사합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연구진은 2025년 총고정자본 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이 1.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24년 실제 6.3% 성장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2026년 투자 성장률은 -4.0%로 예상되며, 이는 이전 전망치인 -3.1%보다 더 큰 감소폭입니다.

이 같은 전망은 정부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비용 절감과 인프라 개선 조치를 포함한 일련의 “크고 대담한(big, bold)” 개혁을 시행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See: <https://businessmirror.com.ph/2026/01/17/big-bold-reforms-to-show-phl-biz-resolve/>

지난주 발표된 주요 제안에는 중국 국적자에 대한 마닐라·세부 공항 14일 무비자 입국 허용과, 이전에 거부되었던 포괄적 자동차 부흥 전략(Comprehensive Automotive Resurgence Strategy, CARS)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 지원 재개가 포함되었습니다.

DLSU 연구진은 수요 둔화 신호도 지적했습니다. 민간 소비 성장률은 2024년 4.9%에서 2025년 4.3%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낮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음을 반영합니다.

연구진은 “우리 전망에 따르면, 미미한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심리 위축이 수요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이 2026년 1분기에 추가 금리 인하를 시행할 충분한 정책 여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정 모멘텀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2025년 4분기 정부 지출 성장률을 이전 6.9%에서 3.5%로 하향 조정했으며, 지난해 말 공공 회계에 대한 강화된 검토가 집행 지연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간 전체 재정 지출 성장률은 여전히 2025년 8.8%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연구진은 재정 정책이 예상보다 성장 지원 역할을 덜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서비스 부문과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 경기 하락에 대한 중요한 완충 역할을 제공하지만, 전반적인 성장은 고정자본 형성의 큰 하락과 완만한 민간 소비에 의해 제약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민간 부문은 신중한 태도와 거버넌스 관련 재정 병목 현상으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Image credits: PAMELA LICO VIA DREAMSTIME.COM, AMRO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6/01/22/amro-sees-clouded-phl-growth-outlook/>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KOREAN AIR

ANYWHERE IS POSSIBLE

Republic of Korea
10 cities

◆ Aomori
◆ Fukuoka
◆ Haneda
◆ Kagoshima
◆ Kobe
◆ Kumamoto
◆ Komatsu
◆ Nagasaki
◆ Nagoya
◆ Narita
◆ Niigata
◆ Okayama
◆ Okinawa
◆ Osaka
◆ Sapporo

Japan
15 cities

◆ Aomori
◆ Fukuoka
◆ Haneda
◆ Kagoshima
◆ Kobe
◆ Kumamoto
◆ Komatsu
◆ Nagasaki
◆ Nagoya
◆ Narita
◆ Niigata
◆ Okayama
◆ Okinawa
◆ Osaka
◆ Sapporo

America
13 gateway cities

- ◆ Atlanta
- ◆ Boston
- ◆ Chicago
- ◆ Dallas
- ◆ Honolulu
- ◆ Las Vegas
- ◆ Los Angeles
- ◆ New York
- ◆ San Francisco
- ◆ Seattle
- ◆ Toronto
- ◆ Vancouver
- ◆ Washington D.C.

Daily Flight Schedules

FLIGHT NO	MANILA	INCHEON	AIRCRAFT	FLIGHT NO	INCHEON	MANILA	AIRCRAFT
KE626	00:55	06:00	A321	KE621	07:40	11:00	B777
KE620	03:10	08:10	A321	KE623	19:05	22:25	B777
KE622	12:30	17:25	B777	KE625	20:05	23:30	A321
KE624	23:40	04:25+1	B777	KE619	22:30	01:55+1	A321
FLIGHT NO	CEBU	INCHEON	AIRCRAFT	FLIGHT NO	INCHEON	CEBU	AIRCRAFT
KE602	00:15	05:35	B777	KE601	18:50	22:20	B777

*Schedules are based on winter season

KOREAN AIR - Regional Office Manila

G/F LPL Plaza Bldg, 124 Leviste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8290-6430 (Local Language); 02-8540-1152 (English 24/7)
 Weekdays from 08:30AM-5:30PM
 mnlsmr@koreanair.com
 www.koreanair.com

